

영생의 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깃듭니다

왕의 반열에 선 사람들의 마음은
힘든 것 지루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전국제단 식구들 중 70%가 왕의 반열에 있는데, 공장식구들은 거의가 다 왕의 반열에 섰기 때문에 그들은 일을 해도 힘든 것을 모르고, 지루한 것을 느끼지 아니하고,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1시간 쯤 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가 인간을 죽지 않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접하게 되면 자연히 오열이 되어 힘든 것도 느끼고 지루한 것도 느끼지만 공장식구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접촉하지 아니하니 오열이 되지 않아 빨리 이루어집니다. 공장식구들은 거의가 다 의인이 된 고로 제단 식구들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세주가 틀림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활 속에서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지고, 또 피로했던 몸이 점점 상쾌한 몸으로 그 증거가 내 속에서 일어나니까 구세주가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의심없이 확신을 가지고 매달리면 이루어집니다. 이 길은 마음으로 가는 길인 고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이루어집니다. 구세주가 단에 설 적마다 영생의 영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루 상관이므로 영생의 영을 부어주었을 때 영생의 영을 받으면 바로 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을 돌리고 인간의 생각을 하면 그 영생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하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

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에 꽉 차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존재했던 그 하나님은 빛입니다. 빛으로서 온 우주에 꽉 차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주인공 중에 주인공인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을 마귀가 사로잡아서 주체영인 하나님의 영을 마귀 속에 가둬놓고 마귀가 주체영이 되는 순간 인간으로 변한 것입니다.

의인은 영생의 확신과 하나님의 마음이
확차게 있는 자입니다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이 인간으로 변해서 자식을 낳게 되니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온 지구 땅 위에 편만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자식이므로 육천 년 만에 당신 자식을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려고 구세주가 온 것입니다. 육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세주만 드는 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만들어지니까 이 구세주를 이 세상, 한국 사람으로 보내어 오늘날 소사 땅에서 승리제단을 세워놓고 의인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공장식구들은 안 믿는 사람과 접촉하지 아니하고 은혜만 받고 일을 하니 의인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식구들이 대부분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공장식구들이 100% 의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승리제단에 모이는 식구들이 의인이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려면 의인이 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의인이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마음이



구세주 조희성님

되어야 바로 영생의 영을 받을 수가 있고 영생의 영은 들어가서 거처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영이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거처할 수 있는 집은 영생에 대한 확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때 영

생의 영이 여러분들 마음 마음 속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면 승리자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 하나님이 되면 영원무궁토록 쾌락 속에서 살게 되고, 영원무궁토록 죽음을 모르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

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사람들이 전부 승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義)에 전염되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인간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사는 세상으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과 희열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되니까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이 승리제단에 나오는 사람들은 죽음이 없다고 말한 대로 이루어져서 1년, 2년, 3년, 100년, 500년, 천 년 그렇게 흐르면서 안 죽는 사람이 여기에서 자꾸 늘어지면 온 세계만민들이 다 영생하는 곳으로 은근보화를 입고 몰려옵니다.

왕의 반열대로 선 하나님들이 사는
천국이 소사 땅에 건설됩니다

천국이 소사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사람 말 속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원뜻은 예멘동산 하늘나라가 6천 년 전에 무너졌지만 6천 년 후가 되는 오늘날에 와서 이 소사 땅에서 하늘나라가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구세주 한 사람만 있어도 예멘동산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세주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하늘나라'라는 찬송가가 있죠? 왕의 반열대로 선 하나님들이 계신 곳이 어디냐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다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합한 세상, 죽음의 세상이 변하여 영생의 세상으로 화하면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의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지 아니하여 하늘나라, 영생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영생의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온 세상이 환한 밝은 세상으로 화하게 됩니다.

구세주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은 마귀가 소멸되는 빛입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마귀와 죄가 남김없이 티끌만한 마귀라도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것도 모르고 항상 쾌락 속에서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즐겁게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사는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쁘죠. 웃으면 피가 맑아지고 생명이 핏속에서 생깁니다. 생명의 힘으로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생명력이 핏속에 생명의 힘으로 유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의 수가 점점 줄어들면 마지막에 생명이 하나도 없어서 '끝'하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생명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중성자 속에 중성자의 빛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 중성자가 곧 생명을 이루는 똑같은 인자입니다. 이 세상 과학자들은 모릅니다. 이 구세주 속에는 영생의 하나님의 신이 있어요. 승리의 하나님의 신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애를 쓰면, 힘들게 하는 마귀를 모조리 죽여서 없애버리니까 곧 몸이 가벼워져 상쾌한 몸이 되어 힘들고 지루하던 일도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어 일의 능률이 몇 백 배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 9월 16일 말씀 중에서



온양제단 교역중 비를 멈추는 기적을 행하다

추후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응답이 내려짐을 느끼다

육중에 계실 때, 영모님께서 그렇게 애절하게 우시면서 간간히 하신 말씀이 "숨겨야 이긴자가 돼, 숨기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셨다. 그때 이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 처하신 끈고한 사정 그 입장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불쌍한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초개같이 던져도 좋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희생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이것을 아낌없이 주시옵소서. 아낌하시다가 나중에 지옥에 던져도 좋고 쓰레기통에 버려도 좋으니 당신의 뜻만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충성의 기도를 하였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기에 수십 년간 전도관에서 이유 없이 마귀 소리를 들으면서도 참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영모님이 억울하게 육중에 두 번씩이나 들어가게 되니 너무 기가 막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십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영모님을 구출해내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하게 이르렀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를 수많은 전도관 교인과 육군 장교 동기생들과 은밀히 협조하여 각종 무기와 병력을 지원받아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다. 이러한 세부계획을 영모님의 형님인 박태국 장로님에게 상의

하였으나 완강히 반대하면서 이 사람을 말했다. 이 사람은 "하늘의 사람 영모님을 억울하게 두 번씩이나 목고를 치르게 하는 현 정권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영모님을 구출해내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하지만 박태국 장로는 전도관에 커다란 재앙을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용산 경찰서에 고발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은밀히 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영모님께서는 벌써 이 사실을 아시고 이 면회가 끝나는 즉시로 온양 전도관에 내려가서 전도사 노릇을 하라고 육중 발령을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현재 군인의 신분인데 어떻게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 영모님께서는 "너는 할 수 있어"라고 하셔서 영동포에 있는 집에도 들리지 않고 곧장 온양으로 내려가 군인 신분으로 온양 제단 전도사 교역을 맡게 되었다. 하늘의 사람 영모님이 죽으려면 죽어도 마다하지 않는 투철한 신앙이 몸에 배어 있었으므로 바로 명령에 따랐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용산 경찰서 형사들이 이 사람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움직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앙의 불모지인 온양에 부흥의 불을 지피다



박태선 장로님이 설교하시는 모습

군인의 몸으로 전도관 교역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 폐가 문제가 있어 병이 중이었기에 가능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분필가루를 많이 마시며 밤낮없이 공부를 가르친 관계로 건강이 안 좋아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고 폐가 구멍이 뚫려 버렸던 것을 알고 병이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온양 전도관에 육중 발령 받고 내려와 보니 신도라고는 겨우 세 명뿐이

었다. 온양 전도관에 와서 식구들을 늘리기 위해 자신부터 새벽 제단을 열심히 쌓고, 기존 식구들 또한 새벽제단을 매일 쌓도록 유도하였다.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다해 신앙 관리를 병행하면서 낮에는 열심히 노방전도를 하였다. 매일 새벽 제단을 볼 때는 미처 일어나지 못한 식구들은 집집마다 찾아가서 나오도록 정성을 쏟았다. 이렇게 앞장서서 열심히 신앙에 불을 지피니 조금씩 제단 분위기가 활성화 되면서

식구들이 한 사람씩 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단에 서서 열심히 찬송 인도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며 설교말씀을 힘차게 역설했다. 불붙는 신앙인 한 명이 살아서 움직이니 위촉되었던 지방제단이 활기를 띠며 서서히 식구들이 늘어갔다. 그렇게 3개월 정도 하니 어느덧 기백 명의 식구로 급증했다. 여기에 가을철 온양을 부흥시키기 위해 부흥집회를 계획했다. 부흥집회 강사는 모 전도사님이 맡고, 이 사람은 찬송인도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모 전도사의 설교 시에는 식구들이 조는 사람이 태반이었는데 이 사람이 찬송인도만 하면 후끈 달아올랐다. 그러니 모 전도사는 설교할 맛이 안 난다고 이 사람 보고 찬송인도도 하고 설교까지 하라고 종용하였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찬송 인도만 하고 그 전도사님에게 설교하도록 설득하였다.

단상에 서서 찬송 인도하는 중 오던 비를 멈추다

당시 부흥집회 때, 장마기간이다보니 비가 와서 모처럼 부흥집회가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찬송인도를 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엘리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멈추어 주신 하나님, 감람나무 가지가 기도하오니 오

던 비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확신에 찬 기도를 하였다. 추후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응답이 내려짐을 느끼며 창문을 응시했다. 그러나 만장한 사람들과 앞좌석에 자리한 장로들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듯 입가에 얇은 미소만 띄우고 있었다. "여러분들! 비가 멈추었습니다."라고 해도 누구 하나 믿고 확인하려들지 않았다. 실제로 창문 밖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기는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방금 전까지 오던 비가 참 밖으로 흘러내리고 있음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조용히 단에서 내려와 자신 있는 걸음으로 제단 중앙 통로를 지나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문을 활짝 열고 나와서 "여러분들 밖으로 나와 보세요. 이렇게 비가 멈추었습니다." 하였다. 과연 조건전도사 하는 말이 정말 사실일까 하고 의아한 표정으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밖으로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실제로 하늘을 보니 제단 지붕을 중심으로 온양 일대의 일정한 반경을 형성하면서 맑게 개어 있고, 그 구역을 벗어나서는 시커먼 비구름이 온통 하늘을 덮고 있는 것을 모두들 눈으로 확인하였다. 이 놀라운 기적에 큰 소리로 환호하면서 감탄과 경이로움에 빠지게 되었다.*